



Global Goings-on

영 국

저열량 식단으로 제2형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 Low-calorie diet offers hope of cure for type 2 diabetes

- ▶ 영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 2개월간의 극단적 식사조절을 통해 기존의 '평생' 질병에 대한 관념을 뒤엎고 제2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
- ▶ 비만과 관련된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2개월 간의 극단적인 저열량 식사를 통해 적어도 잠시 동안이나마 당뇨에서 해방되어
 - 연구를 진행한 Newcastle University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번 걸리면 평생 가는 줄로 여겨진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깨어지게 되어
 - 영국에서는 250만 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그중 대부분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
 - 전 세계적으로 당뇨환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어

- 제2형 당뇨병은 약물로 관리하다 결국에는 인슐린 투여를 해야 해
- 당뇨로 인해 시력을 잃거나 발을 절단해야 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
- ▶ 연구에 참여한 11명 중 7명이 당뇨에서 해방돼
 - 영국 당뇨병협회에서 지원한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2개월 동안 매일 600칼로리만 섭취해
 - Newcastle University의 Roy Taylor 박사는 수년간 당뇨를 앓아오던 사람들이 8주간의 식사조절을 통해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혁신적인 이해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말해
- ▶ 제2형 당뇨는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 발생하는 만성병으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
 - 다이어트 음료와 전분이 없는 야채로 구성된 저열량 식사는 체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제거하여 체장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해
- ▶ 8주간의 식사조절기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

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으나 건강식품과 섭취량에 대해서는 의사의 권고를 따라
- 연구 참가자 중 10명이 재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7명에게서는 여전히 당뇨가 발견되지 않아

- ▶ 영국 당뇨병협회의 Iain Frame 연구국장은 사람들이 의사의 권고와 도움 없이 극단적인 식단조절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해

2011년 6월 24일 / The Guardian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guardian.co.uk/society/2011/jun/24/low-calorie-diet-hope-cure-diabetes>〉

중 국

중국 한 아이 정책의 개혁에 나선 광둥성

China's most populous province launches a public criticism of the one-child policy

- ▶ 정책 시행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은 오늘날 더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
- 최근까지 중국인구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인구학계에 국한돼 와

- 이들은 이 정책이 중국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현재는 인구대체율에 못 미치는 출산율과 불균형한 인구구조를 초래하는 등 중국에 점점 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해

- ▶ 이 논의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해
- 1억4천만 규모로 중국에서 가장 밀집한 인구조밀지역인 광둥성의 인구가족계획위원회 의장 Zhang Feng씨는 언론에다 자신이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완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해

- ▶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은 다소 오해를 받고 있어
- 대부분의 도시에서 부부는 한 아이만 가질 수 있지만 예외도 있어
-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이 부부는 아이를 둘까지 낳을 수 있어
- 일부 부부는 첫 아이가 딸이거나 지역 관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“곤경”을 겪고 있으면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어
- 소수민은 첫째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둘째 아이까지 가질 수 있어

- ▶ 그가 받은 많은 관심에 비해 Zhang씨의 제안은 사실상 완곡해
- 그가 구하는 수준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아이를 둘까지 허락하자는 것
- 대부분 도시에 사는 결혼적령기의 남녀는 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

- 따라서 Zhang씨의 제안에 해당될 인구는 이주 근로자와 도시 거주자의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일 것
- ▶ 중앙정부에 제출한 요구서는 대중에 알려지는 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자는 Zhang씨의 제안을 기회주의로 보고 있어
 -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Zhang씨의 요구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
 - 하나는 중국의 한 아이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공개 비판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향후 이 분야의 어떤 캠페인에서도 광둥이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점임.
 - 광둥성은 중국 인구통제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생아들의 불균형한 성별이 심각해
 - 강력한 남아선호 문화와 초음파 영상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식별해 남자가 아니면 낙태하는 사례가 증가해
 - 이는 또한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광둥성
 - 일반적으로 남녀 신생아 비율은 남자 105명에 여자 100명이지만, 광둥성에서는 2010년 남자 119명에 여자 100명
- ▶ 광둥성이 고민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근로연령 인구나 피부양인구의 비율
 - 광둥의 경제성장은 거대한 규모의 젊은 이민자들을 흡수해 왔으나 경제성장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잠재적 이민인구가 줄어들어 광둥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전망
- 광둥성의 문제는 고령화와 피부양인구 대 부양인구 비율의 상승에 대한 중국 전체의 우려를 반영
- ▶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중국의 한 아이 정책이 중국에 거대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해
 - 2010년 인구조사 결과 중국인구 성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려 - 지난 10년간 고작 0.57% 성장해
 - 또한 이 정책은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으며 중국정부에 대해 세계가 비판하는 핵심 대상이기도 해
 - 최근 후난성에서는 한 아이 정책을 어긴 부모들로부터 “불법” 자녀들을 강제로 빼앗아 이들을 입양시장에 내 놓은 관료들의 스캔들이 조명을 받고 있어
- ▶ 조만간 의미 있는 개혁을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어
 - 가족계획 관료집단은 정부의 모든 층에 자리 잡아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거대한 이익집단
 - 고위 관료들은 가족정책의 변화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견과는 달리 인구폭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해
 - 또한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교체가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고위급 인사 중에 이와 같은 거대 규모의 개혁을 지지할 정치적 동기를 가진 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듯
 - 정부가 정책을 바꿀 정치적 동기를 갖고

- 있지 않다면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Zheng Zizhen씨는 말해
- 그는 과학적 관점에서는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으며 광동성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

2011년 7월 21일 / The Economist

<원문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8988926?story_id=18988926>

중국의 보험시장

China's insurance industry holds a mirror to the government

- ▶ 인생의 굴곡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보험산업은 그 역할과 비슷하게 큰 굴곡 없는 산업
 - 보험은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이지만 그리 높지 않은 수익을 돌려 줘
 - 그러나 중국 보험산업의 성장 전망은 완곡하기는커녕 숨가쁠 정도
- ▶ 이를 반영하듯 중국 보험업계는 최근 일련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여
 - 영업 관행에 의문을 가진 중국 정부가 생명보험 판매의 절반을 책임지던 은행의 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
 - 또한 세계경제 위기 이후 손해보험의 4분의 3을 차지하던 자동차 보험 판매의 큰 추진력이 되어 왔던 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끊겨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판매는 작년 대비 5%만 감소했으며 연초에 잠시 주춤했던 자동차보험 판매는 다시 회복되고 있어
-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상품의 수익성장률을 15%로 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전문가들은 1년에 20%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점치고 있어

▶ 밝은 전망의 배경은 중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하는 부와 아직 미성숙한 중국 보험산업

- ▶ 중국에서 아직 보험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적대적이었던 정부정책이 원인
 - 영국 보험사들은 1846년부터 중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China Markets는 1875년부터 보험시장에 진입했고 AIG는 중국 상해에서 1919년에 설립되었으나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중국정부는 모든 보험사들을 쫓아 내
 - 그러나 핵심 공산당원들도 운송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People's Insurance Company of China (PICC)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하게 돼

- ▶ 변화는 1988년 China Merchants가 중국정부를 설득해 백 년 전 시작했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일어나
 - China Merchants가 설립한 Ping An Insurance는 우선 트럭운송업체의 운송보험을 시작으로 현재는 6백6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보험사로 성장

- PICC는 세계 회사로 분리돼; 첫 번째 회사는 China Life로 순수 생명보험사로는 Ping An보다 더 가치 있는 유일한 회사; 둘째는 PICC라는 오래된 이름을 가진 손해보험회사로 그 가치는 200억 달러에 달해; 셋째는 곧 상장될 예정
- 이 외에도 수 많은 크고 작은 보험사들이 등장하고 있어
- ▶ 오래 전 보험사의 습통을 끊어 냈던 중국정부의 반보험사 정책은 이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
 - 중국정부는 산업뿐 아니라 중국인 생활의 다양한 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관여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어
 - 재난이 닥치면 정부나 법정에서 도움을 얻기란 불가능
- ▶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매우 간단한 상품: 10~15년 보험료를 내면 수익과 함께 사망 시 가족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 받아
 - 이러한 상품은 은퇴, 자녀 교육 및 비상 대비에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투자 상품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져
 - 최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면서 예금 유지에 목이 마른 은행들이 예금 이율을 올리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겨우 2.5%의 수익밖에 보장하지 못해
- ▶ 높은 수익률을 찾아 상당한 수의 고객들이 보험사를 떠난다면 보험사는 타격을 받게 될 것
 -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신경 쓸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
 - 따라서 보험판매원들이 상품을 판매할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어
 - China Life의 판매원은 7십만 명에 달하고 다른 회사들도 거의 대등한 규모의 판매단을 꾸리고 있어
- ▶ 중국에서 흔히 그렇듯 외국 회사들은 영업에 거대한 장애를 안고 있어
 - AIA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보험회사들은 중국 회사와 합작하거나 매우 소규모의 사업체만 유지할 수 있어
 - AIA는 전신인 AIG에서 최근 분리된 회사로 China Merchants의 성공적인 사업면허 취득을 바로 뒤쫓아 중국 다섯 성에서 사업 승인을 얻어내
- ▶ 중국의 AIA 생명보험은 중국 전체 시장의 1%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작은 규모조차도 이 보험사의 신규사업 규모의 8%를 차지해
 - 중국에서는 시장점유율을 조금만 높여도 그 결과는 어마 어마해
 - 중국의 보험시장은 굴곡 없는 지루한 시장이 아니라 매우 스틸 있는 시장이 될 것

2011년 7월 21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8988634/print>〉